

##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개작 및 향유 맥락과 주제 의식 재고찰

김서윤\*

〈차례〉

1. 서론
2. 84장본 개작과 향유의 사회·역사적 맥락
3. 84장본의 개작 양상과 주제 의식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호남 지역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지점에 주목하여, 국권 침탈기 호남 민중의 항일 의식이 84장본 개작과 향유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84장본의 변모는 춘향의 영웅적 면모를 통하여 이전의 완판본들에서부터 이어져 온 민중의 반봉건 투쟁을 부각할 뿐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본격화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호남 지역의 대응 양상 또한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춘향전의 배경을 이루는 남원 일대에서는 의병을 중심으로 한 항일 항쟁이 활기를 띠었다. 84장본은 이러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개작되었고, 이후 1900년대 후반 호남 지역의 항일 항쟁이 고조되면서 지속적인 호응을 얻으며 향유 기반을 넓혀 갔으리라고 볼 수 있다.

완판 선행본들 및 장재백 창본과 비교해 볼 때, 84장본은 이들의 영향을 받는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호남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독특한 개작 양상을 나타낸다. 이전의 판본들이나 판소리와는 달리 춘향을 임진왜란 당시의 애국적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대목들이 새롭게 등장하며, 변학도에 대한 춘향의 발언에서도 국가 의식이 부각되는 것이다. 춘향 모녀와 향리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강화된 점 또한 친일 성향의 지방관들과 맞서 연대하였던 남원 민중의 항쟁 경험을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84장본의 이념 지향적 변모는 단지 봉건적 신분 질서에 대한 저항의 산물만은 아니며, 20세기 초 급격히 진행되었던 국권 침탈에 대한 호남 민중의 비판적 인식 또한 반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84장본이 발간 후 인기를 얻고 널리 향유될 수 있었던 데에도, 의병 운동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항일 항쟁이 19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고조되었던 점을 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반봉건 투쟁, 국권 침탈, 항일 의식, 이념적 개작

## 1. 서론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전의 변천 과정 가운데 하나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이본이다. 춘향을 이상화하여 봉건 체제에 맞서는 민중 영웅의 면모를 부여하고, 춘향과 남원부민의 유대를 통해 근대 지향적 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84장본은 이전의 이본들과 구별된다. 봉건 신분 제도에 항거하는 춘향의 의지를 부각하여 비장미를 강화함으로써 역사 전환기의 긴박한 현실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84장본의 성립은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깊다.<sup>1)</sup>

84장본을 정점으로 하는 완판 춘향전의 변모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1)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특징과 위상에 대해서는 김중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45~167쪽 참조.

까지 완판본 향유층의 현실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이다. 19세기 말까지는 29장본으로 대표되는 <별춘향전> 계열이 인기를 얻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더 많이 읽히기 시작하였으며,<sup>2)</sup> 이러한 33장본의 변화를 본격화한 것이 84장본이라 한다면,<sup>3)</sup> 29장본-33장본-84장본으로 이어지는 완판본의 변모에는 당대의 사회·역사적 향유 맥락의 변화가 일정하게 반영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26장본 <별춘향전>의 경우 성립 시기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경판과의 친연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sup>4)</sup> 남원고사-경판-완판으로 이어지는 좀 더 넓은 변화의 흐름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sup>5)</sup>

또한 완판본은 호남 지역의 판소리 사설을 수용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84장본은 김세종계 춘향가와 친연성이 높다.<sup>6)</sup> 84장본이 당대 인기가 높았던 김세종-장재백 계열 춘향가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이루어졌다면, 장재백 창본과 84장본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봄으로써 84장본 간행 당시의 시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2) 배연형은 19세기 말 전주 지역에서 유행한 판소리 가운데 증고제를 반영한 별춘향전 계열보다 동편제를 반영한 수절가 계열이 점차 더 인기를 얻어 갔으리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배연형, 「〈별춘향전(완판29장본) 연구〉,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210~211쪽.

3) 전상욱, 「완판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의미: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6집, 판소리학회, 2008, 220~221쪽 참조.

4) 김석배, 「완판방각본 <별춘향전>의 성격」,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화회, 2000, 3쪽; 김종철, 「완서신간본 별춘향전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집, 1997, 국문화회, 105쪽 참조.

5) 단, 26장본의 경우 춘향이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종속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29장본보다 성립 연대가 앞서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므로 29장본과의 선후 관계를 단언하기 어렵다(김종철, 위의 논문, 115쪽 참조). 이에 본고에서는 완판 계열의 변모 과정을 분석할 때 26장본은 29장본과 비슷한 단계의 이본으로 간주하였다.

6) 성기련,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김세종계 <춘향가> 수용과 개작」, 『판소리연구』 11집, 판소리학회, 2000, 214~217쪽.

가능할 것이다. 84장본이 처음 간행되었던 1908년 전후는 근대사의 격변기였던 만큼, 이전 이본들이나 판소리와와의 차이를 당시 호남 지역의 사회·역사적 상황과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84장본이 춘향의 형상을 이념화하여 그 투쟁을 사회적 차원의 것으로 고양하였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완판본에서 춘향은 본래 기생으로 등장해 왔으나 33장본에서부터 신분 상승과 이념 지향적 변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84장본에서는 춘향을 이상화하는 서술시각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이 밝혀졌으며,<sup>7)</sup> 84장본 춘향전이 장재백 창본을 수용하면서도 부분적 개작을 통해 춘향에게 이상적 열녀의 형상을 부여하였다는 점도 구명되었다.<sup>8)</sup> 이러한 춘향의 성격 변화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주장하는 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이전의 이본들이 지향해 온 발달한 민중성과 상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민중성이 상하 공통의 보편타당한 가치로 자리잡게 된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sup>9)</sup>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관점에 공감하면서도, 84장본의 변모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호남 지역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심화해 보고자 한다. 84장본은 이전 이본들의 흐름을 발전적으로 집약한 이본인 동시에, 84장본이 처음 간행된 1908년 무렵 호남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전 이본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이전 이본들의 흐름을 이어 민중의 반봉건 투쟁을 엄중히 형상화하는 한편, 1900년대 들어 급격해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호남 지역의 대응 양상 또한 반영하여 84장본의 개작이 이루어지고 그 향유 기반 또한 확대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7) 전상욱(2008), 앞의 논문, 219~221쪽.

8) 성기련(2000), 앞의 논문, 214~217쪽.

9) 정충권, 「판소리계 소설의 민중성과 대중성」, 『개신어문연구』 23집, 개신어문학회, 2005, 213~214쪽.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의 사회 변화는 단순히 봉건 질서에 대한 민중의 저항 구도로만 파악하기 어렵다. 이 시기는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1·2차 한일협약을 거치면서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며, 특히 호남 지역 중에서도 춘향전의 배경을 이루는 남원 일대는 의병을 중심으로 한 항일 항쟁이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후반까지 호남의 사회·역사적 상황이 84장본의 이념 지향적 변모와 연관되는 지점을 완판 내 선행본들 및 장재백 창본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84장본 개작과 향유의 사회·역사적 맥락

84장본이 처음 간행된 1908년 무렵은 전국적으로 항일 투쟁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특히 호남은 19세기 말부터 의병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었으며, 의병 활동을 통해 계층을 초월한 민족적 저항의 연대가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호남의 경우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초기 의병은 나주에서 처음 봉기하였는데, 이 시기의 의병 활동은 양반 유생과 이족의 주도 하에 봉건 체제를 수호하려는 보수적 성격을 띠었기에 계층을 초월한 민족 연대의 성격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군대 강제 해산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계층을 초월하여 국권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07년 이후의 후기 의병 단계에서는 양반과 이족뿐 아니라 평민 계층도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협력하게 되었다.<sup>10)</sup>

호남에서 항일 의병 활동이 활기를 띤 이유는 동학 농민 혁명의 영향으

10) 후기 의병 시기에는 농민, 상인, 목수 등 평민 의병장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김상기, 「한말 호남의병의 항전과 의병장」, 『인문학 연구』 98집,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151~154쪽 참조.

로 볼 수 있다. 동학 농민 혁명은 지역 항쟁의 단계를 넘어 국가 통치 질서의 전면적인 변혁 가능성을 타진한 계기였다.<sup>11)</sup> 19세기 초반부터 민중은 지배층의 수탈과 횡포에 저항해 봉기해 왔으나, 이는 전국적 규모의 연대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반면 1894년 동학 농민 혁명에서는 농민군이 관찰사를 상대로 화약을 맺기에 이르러, 중앙 정부에 대해 항촌 사회가 변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호남은 항일 의병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친일 개화파 내각의 주도로 갑오개혁이 강행된 후, 잇달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향리 세력이 항촌 지배 질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호남 지역에서는 일제의 개화 정책에 반발한 향리들이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항일 항쟁이 한층 활기를 띠었다.<sup>12)</sup> 그 결과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 봉기한 정미의병 활동기에 호남은 전국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되었다.<sup>13)</sup>

호남의 경우, 세금 징수와 지방 재정 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향리들은 1894년 일제의 강압 하에 갑오개혁이 시행되자 사회적 지위를 위협받게 되었다. 1894년 군국기무처의 1차 개혁 후 향리들은 징세권을 향원에게 넘겨주어야 했고, 1895년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들어선 후의 2차 개혁

11) 1894년 이후 농민 항쟁은 민중이 주체가 된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하 동학 농민 혁명의 의의와 조선 후기 농민 항쟁의 단계 구분에 대해서는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항촌 사회 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 교출판부, 1998, 221~228쪽 참조.

12) 옥구에서 이방을 지냈던 임병찬이 1906년 태인 의병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것, 남원 호장 출신인 양한규와 이족 박봉양이 1907년 각각 남원과 운봉 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 의병 연구』, 일조각, 2004, 461~462쪽 참조.

13) 이는 1908~1909년 각 지역 의병이 일본 군경과 교전한 횡수 및 교전에 참가한 의병 수 통계로 입증된 바이다. 홍영기(2004), 위의 책, 19~20쪽 참조.

으로 지방 관아의 관속 수가 70% 이상 감축되었으며 각 군에 세무과가 설치되어 세무주사가 지역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 업무를 맡게 되었다.<sup>14)</sup> 향리들은 세무 행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임기 중 발생한 포흠까지 추궁당하였으므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향리층의 후원 하에 활발히 전개된 호남의 의병 운동은 친일 내각 출신 지방관들에 대한 항거의 형태를 띠었다. 단발령을 강행하였던 나주 부관찰사 나종수가 을미의병 세력에 살해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최익현과 임병찬이 이끌었던 을사의병이 태인 관아를 점령하고 정읍, 순창, 곡성 군수들의 투항을 받았던 것도 지방관과 향촌 이민 간의 대립 구도를 보여준다.<sup>15)</sup> 이는 이 시기 중앙 정부에서 파견되어 온 지방관에 대한 향촌민들의 항거가 단지 봉건적 신분 질서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아울러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후 고문 통치가 시작되면서 경제 침탈 정책의 일환으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도 호남의 항일 항쟁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폐 정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대한제국 농민과 상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책이었는데, 호남의 경우 상평통보를 회수하려는 일제의 조세 정책에 맞서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운동이 전개되었다.<sup>16)</sup>

14) 배항섭, 「1896년 나주 향리층의 의병 주도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5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201~202쪽 참조.

15) 황현도 『매천야록』에서 ‘수령들은 단발을 하였지만 아전과 백성은 단발을 거부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遣剃頭官于各府, 剷日督削, 百年來, 國人始削百會, 謂之除頭風, 蓋氣運之漸也, 至是, 守令或剃廣百會, 丫髮繞頭, 以表無결鬢, 或全削, 以趨時局, 而吏民拒不從令, 屢退期限, 微幸有變“ -고종 삼십이년 을미, 『매천야록』 권지이)

16) 1905년 화폐 정리 사업 당시 영남과 호남에서는 조선 시대 상평통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었는데, 일제는 구리 함량이 높은 상평통보를 수거하기 위해 이 지역의 세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고 상평통보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다른 지역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1907년 전남 장성에서 균세(均稅) 운동이 일어나 전북과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균세 운동은 1908년 남세 거부 운동으로

항일 운동은 19세기 초부터 지속되어 온 반봉건 항쟁과도 연관되었다. 청일전쟁 후 일본 자본이 국내에 침투하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쌀을 판매하게 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에 생계가 곤란해진 농민들이 활빈당을 결성하여 1900년~1906년 사이 전국에서 활동하며 반외세 운동을 함께 전개하였고 그 일부는 의병으로 흡수되었다. 지배 질서에 맞서 민중의 권익을 옹호해 온 농민 항쟁의 흐름이 항일 운동과 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sup>17)</sup>

이처럼 1908년 84장본이 처음 발행될 당시 호남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였다. 특히 1907년 이후 후기 의병 단계를 거치면서 호남이 항일 항쟁의 중심지가 된 점은, 84장본이 이전의 완판 선행본들이나 판소리와는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개작되어 향유층의 공감대를 구축해 나갔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게 한다.

완판본 춘향전은 판본 간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각과 재간이 빈번히 이루어졌다.<sup>18)</sup> 현전하는 26장본과 29장본은 발행 시기가 20세기 이후라도 그 내용은 19세기 말에 성립된 선행 판본을 복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00년대 이후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담아냈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1906년 간행된 33장본도 29장본 등 선행 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급박히 전개되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84장본은 전체 행문의 대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내었기에 당대의 동향과 그에 대한 향유층의 인식을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김혜정, 「구한말 일제의 엽전 정리와 한국민의 군세운동」, 『동아연구』 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559~570쪽 참조.

17) 배향섭, 「도적의 사회사 활빈당 -의적에서 의병으로」,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2, 344~347쪽.

18) 배연형(2006), 앞의 논문, 196쪽 참조.

### 3. 84장본의 개작 양상과 주제 의식

#### 1) 완판 선행본과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호남 지역의 시대상이 84장본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이전의 판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인명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기인 논개와 월선이 춘향과 동일시되고 있는 대목이 그 예이다. 논개와 월선은 26장본이나 29장본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33장본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여 84장본에서는 두 차례 등장한다.

훈참 이리홀 제 엇던 기싱 혼나 춤추며 나오난디 얼시구 절시구 조을시구  
 여러 기싱 듯더니 저 년 밋쳐구나 춘향은 띠를 맛고 거의 죽게 되어난디 너는  
 무삼 험우 잇서 춤을추고 길기난야 형남네 드리보소 히서 기싱 농선은 동설  
 영의 죽어 있고 평양 기싱 월선은 소섭의 목을 베여 김장군께 드리고 천추  
 혈식혀였고 진주 기싱 논기는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의 떠러졌기로 천추의  
 형사혀여쁘니 우리 남원도 현관감이 삼겨꾸나 훈참 이리 헛더니 (18) <33장본>

잇찌 춘향이 하 기가 막켜 천연이 안자 엇즈오되 충효열여 상하 잇소 자상이  
 듯조시요 기싱으로 말합시다 충효열여 엽다 하니 낫낫치 알외리다 ㉠ 히서 기싱  
 농선은 동설영으 죽어 있고 ㉡ 서천 기싱 아히로되 철거학문 들어 있고 ㉢  
진주 기싱 논기는 우리 나라 충열노셔 충열문의 모셔 낫고 천추형사 하여  
 잇고 ㉣ 청주 기싱 화월리난 삼칭각의 올라 잇고 ㉤ 평양 기싱 월선이도 충열  
 문의 드려 잇고 ㉥ 안동 기싱 일지홍은 심열여문 지은 후의 정경가자 잇싸온니  
 기싱 히폐 마옵소서 (54~55) <84장본><sup>19)</sup>

19) 본고에서는 1916년 다가서포 발행본을 참조하였다. 84장본의 판본들 중 널리 유통된 것으로 서계서포본과 다가서포본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다가서포본은 1908년 처음 인쇄된 여승구 소장본 및 1912년 간행된 완흥사서포본과 동일한 판본으로서 84장본이 지속적으로 구현해 온 주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이다. 반면 서계서포본은

전면을 살펴보니 황금디자인로 만고정열 황능지묘라 두러시 붓쳐거늘 심신이  
 황홀하여 비회터니 천원한 낭자 서이 나오난디 석송의 인첩 녹주 등농를 들고  
 진주 기성 논지 평양 기성 월선이라 춘향을 인도하여 니당으 드리가니 (63)  
 <84장본>

33장본에는 매를 맞고 기절한 춘향을 구호하던 기생 중 하나가 춘향을  
 임진왜란 때의 의기 논개와 월선에 빗대는 대목이 있으며, 84장본에는 춘향  
 이 변학도에게 항거하며 논개와 월선을 언급하고 이후 꿈에 황룡묘를 방문  
 할 때에도 논개와 월선의 인도를 받는다.

한편 춘향과 이도령의 초야 장면에서는 임진왜란 때의 무장들인 이순신  
 과 고경명이 언급되기도 한다. 춘향과 이도령의 업음질 대목을 보면, 33장  
 본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충무공’과 ‘제봉(고경명)’을 비롯하여 조선의 충신  
 들과 명신들이 84장본에서는 다수 언급된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과 제봉  
 고경명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장수들로서 20세기 초 국권침탈기 항유  
 층의 항일 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조혼 말을 하오리다 드르시오 부여리를 어분 듯 ㉠ 여성이를 어분 듯 ㉡ 흥중  
 디락 품어쓰니 명만일국 더신 되야 주석지신 보국충신 모도 세아린이 사육신을  
 어분 듯 ㉢ 상육신을 어분 듯 ㉣ 일선성 월선성 고운선성을 어분 듯 ㉤ 제봉을  
 어분 듯 ㉥ 요동벽을 어분 듯 ㉦ 정송강을 어분 듯 ㉧ 충무공을 어분 듯 ㉨ 우암  
 퇴계 사계 명지를 어분 듯 ㉩ 니 셔방이제 니 셔방 알들 간간 니 셔방 (...) (34)  
 <84장본>

조혼 말 호오리다 호을 적의 등등 조홀시고 진사급제를 엮은 듯 동부승지를

---

1918년 이후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84장본의 대표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84장본의 판본 현황과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전상욱(2008), 앞의 논문, 214~  
 215쪽과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13~119쪽을 참조할 수 있다.

업은 듯 팔도감사를 업은 듯 삼정승을 업은 듯 여상이를 업은 듯 부열이를 업은  
듯 보국관서를 업은 듯 외삼천 니팔빅 주석지신니 니 서방이제 니 서방 이리  
보와도 니 서방 저리 보와도 니 서방 알들간간 니 서방이제 (10) <33장본>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목들은 춘향의 ‘열’이 일제에 대한 저항과 애국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들이다.<sup>20)</sup> 실제로 대한제국 시기 항일 의병은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이나 의기의 사적지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sup>21)</sup>

춘향의 항거는 봉건 관료인 변학도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개화 정책을 내세워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 나갔던 일제에 대한 항거와는 일견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변학도는 지극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 이므로, 그에 대한 춘향의 저항은 오히려 일제가 갑오개혁을 통해 추진하던 신분제 폐지를 긍정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파견된 지방관들이 추진한 개화 정책은 향촌의 고유한 질서를 무시하고 중앙 정부의 법제를 강행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발령을 무리하게 시행하던 지방관들이 향촌 이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점을 상기하

20) 경상대 75장본 <별춘향전>에도 논개(의암부인)가 언급되는데, 경상대본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서강대본이 1908년 필사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경상대본 또한 20세기 초의 비슷한 시대 배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지역적으로도 경상대본은 중고제 판소리의 영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데, 20세기 초까지 전주 권역에서 중고제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완판 84장본과 거리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연형, 「별춘향전(경상대본) 소리책 연구」, 『한국음악연구』 38집, 한국국악학회, 2005; 전상욱, 「서강대본 <별춘향전>(102장본)에 대하여 -경상대본 <별춘향전>(76장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36집, 판소리학회, 2013 참조.

21) 강신웅에 따르면 을미의병 당시 진주의 노응규 의병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삼장사와 의기사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강신웅, 「항일의병 운동과 진주」, 『경남미디어』 (2020년 5월 7일 기사). 또 홍영기도 전남 장성의 고광순 의병이 임진왜란 의병 정신을 표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홍영기(2004), 앞의 책, 110쪽 참조.

면, 춘향과 변학도의 대립 구도는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단발령 이후 격화된 향촌민과 지방관의 대립 구도를 형상화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갑오 내각이 추진했던 신분제 폐지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것이었기에 향촌 사회의 자생적인 반봉건 투쟁과는 성격이 달랐다. 춘향과 남원부민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봉건 신분 질서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부정하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분제의 전면 폐지라기보다는 유교 규범을 충실히 실천하면 누구나 고귀한 신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향촌민들은 유교 규범에 근거한 충·효·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와 괴리된 개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민중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듯 보일지라도 결국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84장본에서 남원 향리와 민중이 변학도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심리적으로 연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84장본에서 남원 향리들과 그들의 지휘를 받는 관속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형상화된다.<sup>22)</sup> 판소리는 향리 세력의 후원으로 성장하였으므로 판소리 사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에서 향리들이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84장본에는 향리와 민중의 심리적 연대가 강조되어 있다. 84장본에는 형방과 사령들이 변학도에게 꺾박받는 춘향을 연민하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향리와 그 지휘를 받는 관속들이 춘향의 항거를 지지하며 수령보다는 남원 민중과 심적으로 유대하고 있음을 뜻한다.<sup>23)</sup>

22) 사령 등 관노는 향리와는 달리 천민 계층이지만 향리들과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리들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향리 세력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 94~100쪽과 238쪽 참조.

23) 최재우는 84장본과 〈남원고사〉의 평민과 천민 보조인물 형상을 비교하여, 전자가 긍정적 연대를 이루며 지배층에 저항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상호 갈등 상태

완판 29장본과 33장본에서는 춘향을 잡으러 가는 사령들이 춘향에게 반감을 나타내며, 형장 장면에서도 내적 갈등이나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84장본에서는 사령들이 변학도의 명으로 춘향을 잡으러 갈 때부터 춘향을 걱정하며, 매를 때리는 집장사령도 춘향을 염려하고 형방과 통인들도 춘향의 고난에 눈물을 보인다. 이 중 집장사령과 형방이 춘향을 연민하는 대목은 33장본에도 나타나지만, 84장본의 경우 남원부 남녀노소 민중의 반응이 함께 묘사되며 변학도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향리의 무력함과 이에 대한 민중의 실망감을 함께 서술한다는 점이 다르다.

스령놈 허난 말이 걸리었다 걸리었다 뉘가 뉘가 춘향이가 걸이었다 죠홀시고  
 죠홀시고 양반 셔방 허엿노라 하고 도고함도 도고하고 도랑흙도 도랑턴니 어서  
 가즈 밧비 가즈 (13) <26장본>

스령놈 허는 말리 걸니었다 걸니었다 뉘가 뉘가 춘향이 걸니었다 죠홀시고  
 죠홀시고 양반 셔방 어덧노라 하고 도고함도 도고하고 도랑흙도 도랑턴니 어서  
 가즈 밧비 가자 춘향의 문전의 다다르니” (13) <29장본>

스령놈 허난 말리 걸이었다 걸이었다 춘향이가 걸이었다 조을시고 조을시고  
 아안 셔방 어던노라 하고 도고함도 도고하고 도랑턴니 (...) 사또 보난 디난 웃영  
 이 지엿키로 이년 썸작 말나 사또 아니 보난 디난 속말노 말흐기를 여비라 춘향  
 아 엿질 수가 업고나 요 다리난 요리 틀고 저 다리난 저리 트러라 (...) 말 못하고  
 기질흐니 업제엿던 형방도 눈물 지고 미질흐던 집장사령도 셔를 쓸쓸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것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사또 모지도다 저것을 썸리면 썸이  
 나 치체 저것 몸의 미질흐다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사또 모지도다 가시 가  
 시 어서 가시 사람은 차마 못 보건네 (15~17) <33장본>

에서 지배층의 순응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재우, 「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의 특성 차이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151쪽 참조.

육방이 소동 각청 두목이 녀실 일러 김 변수야 이 변수야 일러 별이리 쏘  
잇난야 불상하다 춘향 정절 가련케 되기 쉽다 사또 분부 지엄하니 어서 가자  
밭비 가자 (...) 집장사령 엇자오되 사또 분부 지엄한디 저만한 연을 무삼 사정  
두오릿가 이 연 다리를 싸짜 말라 만일 요동하다가는 싸 부러지리라 호통하고  
드러서서 금장소리 발 맞추워 셔면서 가만이 하는 말리 한두 기만 전디소 엇절  
수가 었네 요 다리는 요리 틀고 저 다리는 저리 틀소 (...) ㉠ 잇써 남원부 할양  
이며 남여노소 업시 묘와 구경할 제 좌우의 할양더리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  
리 골 원일이 모지구나 저런 형벌리 웨 잇시며 저런 미질리 웨 잇솔가 집장  
사령 놉 눈익켜 두워라 삼문 밧 나오민 급살을 주리라 (...) 말 못하고 기절하  
니 엇저던 형방 퇴인 고기 드러 눈물 쫓고 미질하든 저 사령도 눈물 쫓고  
도라셔며 사람으 자식은 못하건네 좌우의 구경하난 사람과 거헝하는 관속드  
리 눈물 쫓고 도라셔며 춘향이 띠 맞는 거동 사람 자식은 못 보것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춘향 정절리 모지도다 출천열여로다 (51~59) <84장본>

84장본에서 남원 민중은 변학도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향리 세력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는데, 이는 그만큼 민중이  
향리들을 자신들과 동질적 존재로 여기며 신뢰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선  
행 원판본들에서는 월매가 춘향이 매를 맞고 나온 뒤 변학도를 원망할 뿐  
형방이나 사령들의 가혹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반면, 33장본과 84장  
본에서는 이방과 사령을 먼저 원망하는 점도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춘향 어미 달여드러 이계 웬일이냐 장청의 집사네 질청의 이방임네 니 쌀이  
무신 죄로 이리 죽게 썩려싼요 칠십 당연 늘글 거시 의지 업시 되어쑤나 (18)  
<33장본>

춘향 어모가 이 말을 들듯 정신업시 드러오더니 춘향의 목을 안고 익고 이계  
웬 이란냐 죄는 무삼 죄며 미는 무삼 미냐 장청의 집사임네 질청의 이방임

너 빨리 무삼 죄요 장군방 두목더라 집장하던 사정이도 무슨 원슈 미쳤편야  
익고익고 니 이리야 칠십당연 늘근 거시 으지 업시 되야쭈나 (...) (60) <84장본>

향리와 그 휘하 관속들에 대한 일매의 분노는 남원 민중들이 향리 세력을 평소 자신들의 일원으로 여기며 수령의 횡포에 함께 항거하는 유대관계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향리들 또한 수령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는데,<sup>24)</sup> 1895년경부터 1900년대 중후반까지 이족과 민중이 연대하여 항일 항쟁에 나섰던 완판본 향유층의 경험이 84장본의 인물 형상에 일정하게 반영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sup>25)</sup>

84장본의 경우, 변학도에 대항하는 춘향의 말에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각되어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33장본이나 29장본, 26장본에서는 ‘충불사이군, 열불경이부’를 선언하는 정도였던 춘향의 말이 84장본에서는 허유와 백이숙제를 본받겠다는 내용으로 확장된다. 이전의 이본들에서 ‘불사이군’은 춘향의 ‘불경이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언급되었으나, 84장본에서는 오히려 ‘배부기기’보다도 ‘망국부주’를 경계하는 방향으로 발화의 초점이 옮겨져 있다. 은나라에 대한 충성을 고집하며 주나라 관직을 사양했던 백이숙제, 관직을 탐내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허유를 변학도와 대조시킨

24) 앞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84장본에서 집장사령은 춘향의 형장이 끝난 후 ‘사람의 자식으로 못할 일’이라며 자책한다.

25) 84장본의 경우, 다른 이본들에 비해 어사출도 대목에서 향리들이 징치 받는 모습이 강조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84장본에서 향리들은 어사 출도에 면밀하게 대응하여 이도령에게 ‘그놈들 기키여신’이라는 평가를 받고서도(80), 어사 출도 대목에서 가장 먼저 매를 맞으며 수령들만큼이나 ‘육방이 녀슬 이리’ 허둥대는 광경(82)도 자세히 묘사된다. 이러한 84장본의 어사 출도 장면을 변학도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향리들의 행태에 대한 남원 민중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면, 그 이면에는 항일 항쟁 과정에서 향리 계층과 연대하며 신뢰 관계를 맺었던 호남 민중의 역사적 경험도 한 요인으로 자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것은 84장본에서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이 신분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의식 층위의 갈등으로도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충신 열네 일반인더 불경이부 죄을 주기라 흐옵신이 쓰도의 충절유무 이 일  
노 알소이다 주기도 분부 시형 못허것스오니 어셔 급피 주기소서 (15) <26장본>

충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밧고즈 흐옵거늘 분부 시형 못흐옵것소  
진말 말고 슈청하라 춘향이 알외되 주기으면 죽스와도 분부 시형 못허것나이다  
(15) <29장본>

춘향이 엇자오더 충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절을 본밧고자 흐옵거늘 분부  
시형 못허것소 (16) <33장본>

당초의 이 수지 만날 씨의 티산 서히 구든 마음 소첩의 일심 정절 밍분 갖던  
용명인들 빼여너지 못할 터요 소진 장의 구변인들 첩의 마음 움계가지 못할 터  
요 공명선싱 노푼 지조 동남풍은 비러씨되 일편단심 소여 마음 굴복지 못하리  
다 기산의 허유난 붓촉수요거천 호고 서산의 빅숙 양인은 불식주숙 하여쓰이  
만일 허유 업서쓰면 고도지산 누가 하며 만일 빅이 숙제 업서쓰면 난신적자  
만하리다 첩신이 수천한 계집인들 허유 빅을 모르잇가 사람의 첩이 되야 빅  
부기가 흐는 법이 베살하난 관장임네 망국부주 갖싸오니 처분더로 흐옵소서  
(55) <84장본>

같은 맥락에서, 춘향의 황릉묘 꿈에 왕소군이 등장하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3장본에서는 녹주가 등장하던 자리에 왕소군이 나오는 것인데, 녹주가 석승에 대한 절개로 이름난 인물이었다면 왕소군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환기하는 정서가 다르다.

이러타시 실피 울 제 서편의 엇던 부인 추추이 울고 나오면서 여바라 춘향아

네가 우리를 모로리라 우리는 님고 하니 석승의 소이 녹주로다 불칙흔 초왕 윤  
이 누천갑자분여설하야 정시화비옥시사라 낙화유사타루인하야 두 사람의 비흠  
이라 이러타시 설이 올 제 (20) <33장본>

이러할 제 또 한 부인 말삼하되 나는 한궁여 소군이라 호지의 오거하니 일부  
청춘뿐이로다 마상 피파 한 곡조의 화도성식춘풍면이요 화피공귀월아흔이라  
엇지 안이 원통하랴 한참 이러할 제 (63) <84장본>

84장본의 작자는 남녀간 애정 서사로 널리 알려진 녹주보다는 고국에 대한 한결같은 그리움과 충성심을 나타내는 왕소군이 당대 향유층의 정서에 더 부합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sup>26)</sup> 또한 84장본의 황릉묘몽 대목에서는 왕소군을 비롯한 여성 인물들이 33장본에서와는 달리 울음을 보이지 않는데, 이 또한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였던 당대 향유층의 현실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장재백 판소리 사설과의 차이점

완판 춘향전은 동편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남원 쪽의 판소리가 전주에서 인기를 얻으며 완판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7)</sup> 남원과 가까운 운봉과 순창 일대에 기반을 두고 활

26) 왕소군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충신’으로 인식되어, 고려와 조선 시대 한시의 소재로 널리 채택되었으며 국권이 침탈되었던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왕소군 이야기가 대중 가요와 연극의 형태로 활발히 전승되었다. 정운채, 「왕소군 고사 수용 한시에 나타난 충신연주지사의 심리적 특성」, 『고시가연구』 5, 한국고시가학회, 1999, 565쪽; 손대현, 「왕소군 이야기의 근대적 전유와 욕망의 충돌」, 『어문학』 130, 한국어문학회, 2015, 85~86쪽 참조.

27) 이태영은 1908년 간행된 완판 심청전에 딸꼭질을 뜻하는 단어인 ‘꽤까질’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남원 방언이 담겨 있는 판소리 사설이 전주에서 완판본으로 출판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태영,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06~107쪽.

동하였던 김세종-장재백 계열의 동편제가 완판 84장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은 을사조약 후 1905년부터 1909년까지 의병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고조되었던 곳이다. 특히 남원, 운봉, 순창 일대에서는 1906년 을사의병 세력이 각 관아를 점령하고 지방관들의 투항을 받기도 하였다.<sup>29)</sup> 또한 남원은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황산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며, 정유재란 당시 수많은 부민들이 왜군에 희생된 것을 기리는 만인의총(萬人義塚)이 남아 있는 등 항일 항쟁의 역사가 유난히 깊은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이 지역의 판소리에 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면, 앞에서 살펴본 84장본의 주제 의식은 장재백 창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재백 창본은 성립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간행은 1925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이 어느 시기의 판소리 사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장재백 명창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19세기에 불렀던 사설이 창본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84장본이 현전하는 장재백 계열의 판소리를 수용한 점은 분명하므로 장재백 창본과 84장본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를 어떻게 개작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가능하다. 개작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추론해 봄으로써, 84장본이 처음 간행된 1908년 무렵 향유층의 현실 인식 또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장재백 창본과 84장본은 논개, 월선, 고경명, 이순신 등 임진왜란 당시의 명장과 의기들을 언급한 점이 같다. 1894년 무렵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국

28) 성기련(2000), 앞의 논문; 배연형, 「보성소리와 장재백 춘향가의 형성 과정」, 『판소리 연구』 23집, 판소리학회, 2007.

29) 1906년 최익현과 임병찬이 이끌던 태인 의병이 순창 군수와 곡성 군수의 투항을 받은 것, 1907년 향리 출신 양한규가 이끌던 의병이 남원성을 점령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김상기(2015), 앞의 논문, 128~129쪽과 최제학, 「면암선생장의전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0, 59~103쪽 참조.

권 침탈에 대한 경계의 시각은 장재백 창본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춘향이 매를 맞은 후 한 기생이 춘향을 논개와 월선에 빗대는 대목, 춘향과 이도령의 초야 업음질 대목에서 고경명과 이순신이 언급된 대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한참 이리 분주할 제 뜻밖고 엇편 기싱 울다가 우시면서 두 활기 썩 버리고  
 춤 추면서 노리한다 열씨고나 절씨고 지와즈 졸씨고 여러 괴싱덜 어이엿썩 에  
 라 이 몫실 연아 너난 옛전 심사로서 춘향이 띠를 맞고 죽을 지경 되얏난디 춤  
 추기가 웬일인야 네가 살미들닌 년 안이나 제 기싱 더답혀되 너그덜 모르리라  
경상도 진주셔난 의암부인이 나겨시고 평양은 월천씨 히셔의난 동선씨 충청  
도 청주셔난 미월이가 나겨시고 절나도 남원쌍의 열여 춘향이 나겨썩이 노방의  
 정문 세고 우리 조방청의 선판쌈이 삼겨썩이 엇지 안이 조홀손야 열씨고 조홀  
 썩고 지와즈 졸씨고 (40) <장재백 창본><sup>30)</sup>

조흔 말을 호오리다 (중중머리) 둥중 졸씨고 부열리릴 어분 듯 여성이를 어분  
 듯 흥중디락을 품어썩이 명만일국 지상되어 쥬석지신 보국춤신 다 모도 헤아린  
 이 싱육신을 어분 듯 스육신을 어분 듯 퇴게 스게를 어분 듯 일두선싱 율곡선싱  
 고은선싱을 어분 듯 춤무공을 어분 듯 고제봉을 어분 듯 둥둥둥둥 어둥둥 졸  
 씨고 진스급제 디 밧썰와 직부쥬셔 할님학스 외방이력 드 년후의 우부승지 좌부  
 승지 도승지로 당상하여 팔도감사를 어분 듯 육조판서 삼정싱 보국디신을 어분  
 듯 니삼천 외팔빅 쥬석지신 니 서방이제 암면 그러체 (20~21) <장재백 창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84장본의 업음질 대목에는 위의 장재백 창본에 언급된 인물들이 모두 언급되며 이에 더해 요동백 김웅하, 송강 정철, 우암

30) 본고에서 참조한 창본은 김진영·김현주·김희찬,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93~175쪽에 실려 있는 것인데, 제목이 ‘장재백 창본’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장재백(張在伯)’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아 쓴다. 장재백 명창의 본명에 관한 설명은 최동현, 「장재백과 그 일가의 판소리 인맥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16집, 판소리학회, 2003, 339~341쪽 참조.

송시열, 명재 윤증도 나온다.<sup>31)</sup> 무예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조선 시대 인물들을 더 많이 언급한 것은 장재백 창본에 구현된 역사적 자부심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84장본의 개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장재백 창본에서는 황릉묘몽 대목에 왕소군이 아닌 녹주가 나온다. 84장본에서는 왕소군이 등장하는 자리에, 33장본에서와 같이 녹주가 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또한 84장본이 장재백 판소리를 수용하되, 인물들의 애국심과 의지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황릉묘 대목을 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 편의 또 한 부인 츄츄이 울고 온다 네가 날을 모로리라 이쥬미쥬하든 석승  
의 안히 녹주로다 불칙한 조왕유난 누전각스분여설한이 정시화비옥쇄시라 낙  
화유스타누인은 스랍의 비함이라 (43) <장재백 창본>

이밖에도 춘향이 변학도 앞에서 수절을 항변할 때 낙창공주와 녹주를 거론하며 남편에 대한 정절을 주장할 뿐 나라에 대한 지조를 지킨 백이숙제를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생들의 열행을 열거할 때 논개와 월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장재백 창본이 84장본과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 84장본이 춘향을 왕소군, 백이숙제 등 역대 충신들과 동일시한 것은 완관 계열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현상일 뿐 아니라 장재백 판소리와 비교해서도 새로운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창 월궁의 슈치와 녹주 금곡의 절향을 이는 바로 충불스이군과 열불경이부  
절을 본밧고져 윈이온디 슈츠 분부 이러흐읍신이 열불려음이요 싱 불려스온이  
처분디로 흐읍쇼셔 (37) <장재백 창본>

31) 84장본 해당 대목의 ‘일선생’과 ‘월선생’은 각각 ‘일두선생’과 ‘율곡선생’의 오기(誤記)로 보았다.

춘향이 기가 댕켜 (중머리) 여보 나리 듯썩썩요 기상의게 춘회절향이 업싸한  
 니 난낫치 드러보오 히서 괴성 동선이란 돌설영의 죽어 잇고 성천 괴성 아긔로서  
 칠개야문 드러 잇고 삼국팔연 오란할 계 여포동빅 흥한 장수 호환업시 호읍기난  
 초선이라 헛엿쌌고 청주괴성 미월리난 삼츙스의 올라 잇고 안동기성 일지흥이  
 싱열여문 세윗선이 괴성의게 흥이 업썩 회가 업쇼 열이 업쇼 (37) <장재백 창본>

84장본이 김세종제 판소리를 수용하되 춘향을 이상적으로 이념화하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sup>32)</sup> 황릉묘 대목이나 변학도에 대한 춘향의 항변 대목에서 나라에 대한 충절을 부각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추구하였던 향유층의 진보된 사회의식과 함께 84장본 개작 무렵의 급박한 국가적 위기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어서 인물 형상화의 측면을 보면, 장재백 창본은 84장본과는 달리 인물을 희화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일례로 변학도는 남산골 출신의 괴팍한 인물로 소개되어, 신연 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춘향의 안부부터 묻는 등 84장본에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희화화된다.

신관 사또가 나게씨되 남살썩 변 학썩 도썩 씨난 양빈인디 성정이 괴팍한 중의 스썩을 겹혀 한번 마음이 도라서면 빅인이 휘라도 도라설 줄 모르난 성정인디 남원골을 너려와 빅성의 치민할 마음언 한나 업고 춘향 일식이란 말을 듣고 한번 보기를 워닐 견지엿따 신연하인 선신할 제 이방 슈비 감상 공방 통인 급장 스렁이요 츠레로 선신할 제 다른 사또 갓트면 오 잘 올라와썩며 네 골 민폐나 업는야 이리할 이리되 오 너의 올라올 줄은 알건이와 춘향 아씨 잘 잇썩며 혹 너게 셔간장이나 업썩니 (29) <장재백 창본>

이밖에도 장재백 창본에는 춘향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군로

32) 성기련(2000), 앞의 논문, 215~216쪽.

사령들이 서로 상투를 붙잡고 변학도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대목, 책방 허낭청이 변학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웃음을 자아내는 대목이 있어 84장본에 서와는 달리 변학도가 위압적인 인물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다. 장재백 창본에서 변학도는 이도령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회화화의 대상으로 친근하게 묘사되는 바, 84장본에서처럼 지방관에 대한 적대적 서술시각이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향리들의 형상도 84장본에 비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변학도의 명으로 춘향을 잡으러 가는 군포사령들이 춘향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 춘향이 매를 맞은 뒤 월매가 신관 사또를 원망할 뿐 향리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부분이 그러하다.

(중중머리) 굴노스령이 나온다 스령굴노가 나간다 산슈털 병거지 남일광단의 안을 울여 날날이 용쓰를 짝 붓치고 구정대들의 절낭거리고 절낭절낭 나가며 서로 부르면서 나간다 이 이 집번슈야 워야 박피도야 무엇할네 걸이엿구나 걸니여 게 뉘기가 걸니여 춘향이가 걸니었다 올타 그 제미붓소 발기를 갈 연이 양반 서방을 흐엿싸고 우리를 보면 초리로 보고 덩헤만 잘잘 쓰윽며 교만이 너머 만턴이라 네나 너나 일본 스정 두난 놈은 제미 오금의 풀칠흐즈 (33) <장재백 창본>

여보소소 드러보오 제 슈절 저흐난디 무신 죄가 디단흐여 이리 죽게 씨러난가 (40) <장재백 창본>

장재백 창본에도 향리들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대목들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이 형방과 집장사령이 춘향에게 연민을 나타내는 대목, 어사 출도 후 월매가 자신을 도와준 이방에게는 고마움을 표하고 자신의 신뢰를 저버린 이방은 원망하는 대목, 어사가 향리들과 정사를 의논하는 대목 등이 그러하다.

쇼녀를 이리 말고 살지중지능지하여 아조 박살 죽여주면 정막공산 달 쓴 밤  
 의 초흔쇼와 함쓰 우리 이도령 잠든 후의 파몽이나 하여지다 말 못하고 기절한  
 이 (중머리) 업젓쓴 형방도 눈물 짓고 미질 흥든 집장스령 도라셔 발 툫툫 서  
 싹쓸 츄며 스람의 즈식은 못 보것짜 좌우 틈틈이 굶보난 노쇼 업시 아츠아츠  
 불쌍하다 저런 미질이 또 잇는야 (39) <장재백 창본>

얼씨고나 졸씨고 지와즈 졸씨고 절노 죽은 고목 우의 시절 연화가 되어구나  
 얼시고나 졸씨고 어스 스의 드리보오 저기 안진 양이방 옥슈바라지 할 슈  
업써 돈 열 양만 취허란직 돈 삼십 양 빅미 열 말 고기 열 쓴 보너썬이 그런  
은혜가 또 잇난가 신연 이방 도서운의 디동빗설 겸쳐 주쇼 얼시고나 졸씨고  
저기 첫난 도스령놈 니 쌀 춘향 미질할 제 열 썬 부탁허엇편이 압장깁이 골  
을 님이 요놈 요놈 전디여 보와라 육씨 발게 찌지리라 얼씨고나 절씨고 (...)  
 (엇머리) 어사또 분한 마음 본관은 삭탈관직 인병부 폐여 검관으로 건네시고  
 삼공형 불너디려 곶티유법을 의논하고 (67) <장재백 창본>

이러한 대목들은 33장본이나 29장본에 비해 장재백 판소리에서 향리와 민중의 유대가 진전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계층이 서로 거리를 두는 대목들도 섞여 있어 84장본에 비하면 향리와 민중 계층 간 유대가 약하다. 이는 84장본의 작가가 장재백본을 참조하되 지방관에 횡포에 맞서는 향촌 이민의 연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개작하였다는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장재백 창본과 84장본의 차이는 이도령을 형상화하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다. 장재백 창본에는 이도령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춘향을 처음 보고 방자와 회담을 나누는 장면, 부친 이부사의 오수경 앞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장면 등이 그 예이다. 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온 이도령은 시부모 흉을 보는 여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하고, 초동에게 속아 춘향이 죽은 줄 알고 엉뚱한 무덤 앞에서

통곡하다가 상주들에게 쫓기기도 한다.

반면 84장본의 이도령에게서는 그러한 친근한 형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방자와의 회담, 초분 사건 등이 삭제되었으며 춘향과의 옥중 대화 장면도 비교적 소략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장재백 창본의 경우 옥중 상봉 장면에서 춘향이 이도령에게 모친 월매를 부탁하는 말을 하지만 84장본에서는 거꾸로 춘향이 월매에게 이도령을 돌봐 달라고 당부한다.

여보 서방님 워야 우리 모친 흐신 말씀 속상하여 노망인이 부디 노여 마르시고 니 말씀을 드리보오 (중머리) 첩의 중심 원하기를 유정낭군 귀이 되야 이 설치를 흐여줄가 양천축슈 바리쓴이 저러듯 그릇되여 걸각의로 오섯썬이 마음은 섭섭흐나 이도 또한 니 팔즈라 한탄한덜 엇썬이게집의 팔즈로서 옥중의 서 죽스와도 일부종스 흐엇씨면 니 분위여 족한지라 그년 한이 업썬이와 불상 흐신 우리 모친 언의 아덜이 잇썬 언의 또 딸이 잇썬 실흐의 씨친 혈육 불쵸 여식 나 하나로 후스를 바리다가 니 한몸 죽어지면 의지 업신 우리 모친 거리거 리 동니 마닥 우지지고 단일 일을 감감이 싱각한이 나 죽은 혼이라도 구천불망 지흔 되오린이 부디 팔세 마르시고 불쌍이나 싱각호오 아사또 흐신 말씀 그 부탁은 남이 드르면 우실 말이로다 지금 스세난 네의 모친이 날을 팔세 말나고 그 부탁이나 흐여라 (59) <장재백 창본>

한양성 서방임을 칠연 티한 가문 날의 갈민디우 기두린들 날과 갖치 자진던 가 신근 남기 썬거지고 공든 답이 문어졌네 가련하다 이 니 신세 하릴업시 되야 썬나 어만임 나 죽은 후의라도 원이나 업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 안의 드러쓰니 그 옷 너여 파라다가 한산 세져 박구워셔 물식 곱게 도포 짓고 빙방사썬 진초미를 되는 디로 파라다가 관망 신발 사 디리고 절병 천은 비니 밀화장도 옥지환이 함 속의 드러쓰니 그것도 파라다가 한삼고의 불초찬게 하여주오 금명간 죽을 언이 세간 두어 무엇할가 용장 봉장 썬다지를 되는 디로 팔러다가 별찬 진지 디접하오 나 죽은 후의라도 나 업다 말으시고 날 본다시 섬기소서 (78~79) <84장본>

84장본 및 선행 완판본들에서와는 달리, 장재백 창본에서는 춘향이 이도령에게 모친을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84장본의 작자는 장재백 창본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선행 완판본의 내용을 계승하여 춘향과 이도령의 관계를 조정하였다. 84장본에서 이도령은 춘향이 자신의 모친을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친근한 대상도 아니며, 남원 농부들에게 먹살을 잡히거나 옥설을 듣지도 않는다. 춘향을 비롯한 남원 민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도령의 형상이 변화된 것이다.

이도령이 어사의 직분을 통해 국왕을 대리하는 존재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도령의 형상 변화는 국권 침탈 시기 고종과 민중의 관계를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부터 고종 황제는 친일 내각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 항일 항쟁을 간접적으로 격려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밀지와 마패를 통해 지방의 의병들이 친일 지방관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명분을 부여하였다.<sup>33)</sup> 84장본의 어사 이도령이 친민중적 면모보다는 왕의 대리인다운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데에는 이러한 당대의 상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4.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전개된 호남 지역의 항일 투쟁 경험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보고 그 근거를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듯이 84장본에서 강화된 인물들의 이념 지향적 면모는 민중의 반봉건 항쟁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권 침탈기 호남 지역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이에 대한 호남 민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의미도 내포한다.

33)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67~77쪽과 221~258쪽 참조.

84장본은 선행 완판본들과 장재백 창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였다. 33장본이나 장재백 창본도 곳곳에서 국권 침탈기 향유층의 위기의식이 나타나지만, 84장본만큼 일관되고 분명하지는 않았다. 선행 완판본들의 경우 84장본에 비해 길이가 짧기에 당대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장재백 창본의 경우 공연 현장의 흥취를 높이기 위한 창본의 특성상 당대의 현실을 비장감 있게 형상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84장본은 독서물을 지향하면서도 당대에 성행하던 판소리 사설을 받아들여 분량을 확장하였고, 분량을 늘리면서도 흥미를 높이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당대 현실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좀 더 일관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84장본에서 춘향의 ‘열’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넘어서 남원부민 전체를 연대하게 하는 구심점이기도 하다. 처지가 다른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연대하여 춘향의 열을 옹호하며 중앙 권력과 대립하는 모습은 민족 연대의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던 1900년대 중반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변학도와 남원 향리들의 성격 변화 또한 84장본에 반영된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84장본이 1908년 첫 발행 후 1910년대 중반까지 거둬 발간되며 향유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국권 침탈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분위기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권 회복이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사회 전반의 근대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옥중화> 계열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 발행되었거나 인기를 얻었던 춘향전 이본들을 좀 더 폭넓게 비교하여 향유층의 현실 인식 변화를 보다 면밀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다가서포본,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299~377쪽.)
-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255~295쪽.)
-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이라 극상> (다가서포본,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223~251쪽.)
- 완판 26장본 <별춘향전>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197~220쪽.)
- <장자백 창본 춘향가> (김진영·김현주·김희찬,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93~175쪽.)
- 황현 지음, 김준 옮김, 『매천야록』, 교문사, 1996, 1~962쪽.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 사회 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411쪽.
-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 1~280쪽.
- 김상기, 「한말 호남의병의 향전과 의병장」, 『인문학 연구』 98집,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121~159쪽.
- 김석배, 「완판방각본 <별춘향전>의 성격」, 『한국문학논총』 26집, 한국문화회, 2000, 193~217쪽.
-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330쪽.
- 김혜정, 「구한말 일제의 엽전 정리와 한국민의 균세운동」, 『동아연구』 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541~573쪽.
- 배연형, 「<별춘향전(완판29장본) 연구」, 『판소리연구』 22집, 판소리학회, 2006, 195~228쪽.
- \_\_\_\_\_, 「보성소리와 장재백 춘향가의 형성 과정」, 『판소리연구』 23집, 판소리학회, 2007, 27~46쪽.
- \_\_\_\_\_, 「별춘향전(경상대본) 소리책 연구」, 『한국음악연구』 38집, 한국국악학회, 2005, 27~73쪽.
- 배항섭, 「도적의 사회사 활빈당 -의적에서 의병으로」,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2, 343~347쪽.
- 배항섭, 「1896년 나주 향리층의 의병 주도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51집,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183~229쪽.
- 성기련,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김세종제 〈춘향가〉 수용과 개작」, 『관소리연구』 11집, 관소리학회, 2000, 197~223쪽.
-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1~535쪽.
- 이태영, 「완관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3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91~115쪽.
-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83쪽.
- \_\_\_\_\_, 「완관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의미: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26집, 관소리학회, 2008, 201~228쪽.
- \_\_\_\_\_, 「서강대본 〈별춘향전〉(102장본)에 대하여 -경상대본 〈별춘향전〉(76장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36집, 관소리학회, 2013, 541~564쪽.
- 정충권, 「관소리계 소설의 민중성과 대중성」, 『개신어문연구』 23집, 개신어문학회, 2005, 201~217쪽.
- 최동현, 「장재백과 그 일가의 관소리 인맥에 관한 연구」, 『관소리연구』 16집, 관소리학회, 2003, 337~365쪽.
- 최재우, 「보조인물의 성격으로 본 ‘춘향전’ 이본의 특성 차이 -〈남원고사〉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1, 122~155쪽.
- 최재학, 「면암선생창의전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0, 1~974쪽.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 의병 연구』, 일조각, 2004, 1~606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xt and Theme of 84-jang  
*YulnyeoChunhyangsujeolga* (烈女春香守節歌)

Kim, Suh-yoon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the Honam area in the mid to late 1900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anti-Japanese sentiment of the Honam peopl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acted as a factor in the revision of the 84-jang *YulnyeoChunhyangsujeolga*(烈女春香守節歌). Besides highlighting the anti-feudal struggle, the transformation of the 84-jang version additionally reflects the response of the Honam people to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During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began with the Gabo Reform, the Eulmi Incident, and the Eulsa Treaty. In Namwon, which forms the background of *Chunhyangjeon*, the anti-Japanese uprising centered on the voluntary army's continued action. In the mid to late 1900s, Honam was the most active region for anti-Japanese uprisings. Based on this, beyond the hierarchy, ethnic solidarity was strengthened, and pro-Japanese reforms that were enforced by the central cabinet through local officials were resisted.

The figures of the 84-jang edition differ from those of the earlier editions, although it was establish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earlier versions, such as the 33-jang edition and Kim Sejong - Jang Jaebaek pansori series. Unlike previous editions and pansori, the 84-jang edition has new lines identifying Chunhyang with patriotic figur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Imjinwaeran(壬辰倭亂), and the national consciousness is emphasized in Chunhyang's remarks against Byeon Hakdo. In addition, the strengthening of trust between Chunhyang and Hyangri(鄉

吏) reflects the experiences of the Namwon people who were united against pro-Japanese local officials.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the ide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84-jang *Yeolnyeochunhyang-sujeolga* was not only a reflection of resistance to the feudal order, but a result from critical perception of the Honam people towards the rapid invasion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in the 1900's.

**Key Words**

Wanpan(完板) 84-jang *Yulnyeochunhyangsujeolga* (烈女春香守節歌), Anti-feudalism, Invasion of national rights, Anti-Japanese consciousness, Ideological Revision

논문투고일 : 2021.07.26.  
심사완료일 : 2021.08.09.  
게재확정일 : 2021.08.11.